

10 오피니언

사설

학생자치 지속 위한 대안 찾기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돼 운영된다. 국제캠 총학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돼 비대위로 전환된 것은 국제캠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캠퍼스 총학 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는 한 곳에 불과하다. 총학을 제외하고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구성하는 단과대학 학생회 및 특별자치기구 10곳 중 한 명이라도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구는 4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경선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한 곳에 그친다. 국제캠 학과/학부 단위 학생회 선거구 42곳 중 절반이 넘는 22곳의 선거도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됐다.

학생회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학생대표단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사라졌다. 학생회가 학생사회의 일을 논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장에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만큼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총여학생회 폐지 투표에서 나타난 아쉬운 투표율에 이어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엔 학생회 선거 대규모 켈위 사태로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모습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2020년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학생회는 기존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과 언택트에 맞춘 갖가지 학생회 사업이 전개됐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휩싸이기 일수였다. 이른바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생자치는 비대면

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이번 나타난 경직된 학생사회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항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의 ‘모티브’를 찾을 수 없는 학생자치의 특성상, 학생자치활동은 선배의 모습을 보고 후배가 이어가는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학생사회는 주기적으로 그 구성원이 교체된다는 특성을 지닌 공간이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을 전제로 한 온전한 학생자치를 경험한 선배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승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내년엔 이를 전승해줄 많은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내년부터 대면 수업은 재개

되지만, 대면 학생자치에 대한 전승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학생자치의 지속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선·후배 간 교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한 간호과학대학 학생회는 선배와 후배를 짝지어 선배들의 지식이 후배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한 바 있다. 정경대학 학생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맞은 대학문화를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선배와 신입생의 교류를 증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학생자치의 지속을 위한 대안을 간호과학대학과 정경대학의 사례에서 찾는다. 선배들이 가진 학생자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를 후배들에게 이어가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학생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시봉

‘뿌리’의 상실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성평등위원회 폐지는 백래시다.”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성평위) 폐지로 ‘성평위 폐지 및 대학 내 백래시 규탄 공동행동 행사’가 진행됐다. 총여학생회(총여)의 대안기구였던 중앙대 제8대 성평위 ‘뿌리’가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된 연서명을 통해 졸속 폐지됐다. 익명의 발의자는 “성평위의 게시물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특정 성별만 수혜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건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대 성평위는 특정 이념에 편향된 단체가 아닌 성폭력 피해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구성원을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활성을 진행하는 학생자치기구일 뿐이다. 또, 2학기 인권문화주간에는 군대 내 인권과 성평등을 주제로 오픈세미나가 예정돼 있었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안건이 발의되고, 확운위에서 가결된 것이다. 중앙대의 성평위 졸속 폐지는 ‘페미니즘 백래시’의 산물이다. 이제 더는 중앙대 내에 총여 대안기구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기구였던 ‘뿌리’가 폐지되며, 구성원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됐다.

35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학교 총여 해산이 이뤄진 후, 익명 게시판에서는 이를 일부 성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구성원 간의 속의과정을 무시하고, 오독하는 일이 있었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비단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새로운 대안기구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신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켈위 상태가 지속되며 제 기능을 못하던 기구를 해산하고, 더 실효성 있는 기구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총여의 역사적 맥락을 계승할 학소위가 백래시로 뿌리 뽑혀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들의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 총여의 대안기구는 대학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구다. 학생 사회를 꽃피울 뿌리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자치기구이다. 오늘의 뿌리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내일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

디폴트 옵션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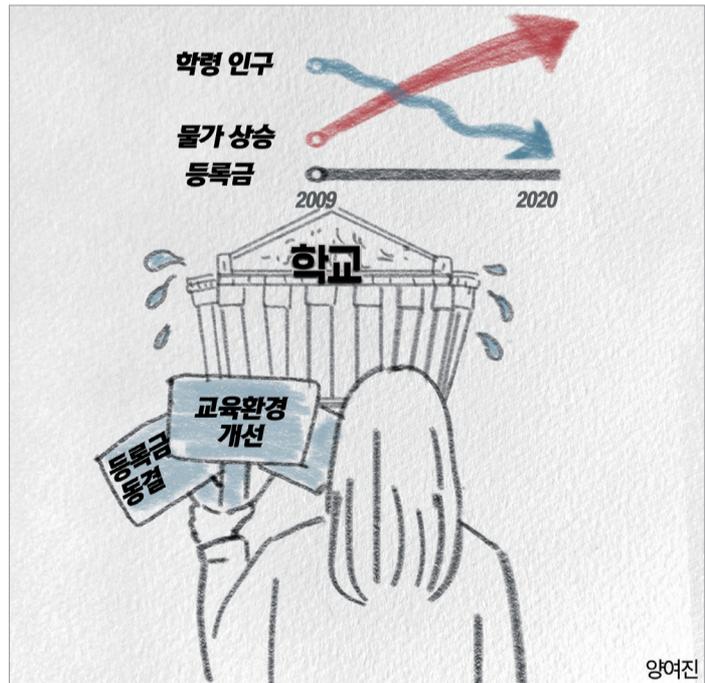
리처드 탈러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넛지(nudge)>는 기본으로 설정된 값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 한번 기본으로 설정된 값인 ‘디폴트 옵션’은 우리의 판단의 기초가 되어, 이를 변경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정되어 왔던 기본 값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구성원 간의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샌가부터 “등록금 동결”은 등록금을 둘러싼 ‘디폴트 옵션’이 되었다. 우리학교 역시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2009년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2012년 -2.5%를 기록한 이후 2009년의 등록금으로 회귀한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등록금에 대한 학생 사회의 담론은 언제나 ‘동결’ 혹은 ‘인하’로 귀결된다. 이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학가는 다양한 변화와 개선 요구를 받고 있었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물가 인상, 191.8%에 달하는 상당한 교육비 환원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응해 왔다. 등록금은 더 이상 ‘동결’ 담론에 과문하여야 할 대상이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어떻게 활용하여 대학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우리는 어찌면 디폴트 옵션의 강력한 효과를 목격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학은 새로운 기본 값을 설정하기 위해 학생 사회가 요구하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 사회 역시 유학생 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기본 값이 설정되도록 논의의 장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관성을 깨고 서로의 노력이 닿을 때 구성원 간의 이해와 개선 역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평 관성으로부터의 탈피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